

#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와 생명의 떡을 주시다

요한복음 6:35; 요한복음 6:48~69

2022년 6월 12일 설교

크리스 식스 목사

올해 우리는 New City Catechism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것을 훌륭하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4번 문제를 읽고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 24문: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속하시고 죄의 용서와 의와 영생을 얻으십니다.

## 소개

우리 교회 명함 뒷면에는 “We want to see Jesus”라고 여러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살롬의 삶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롬은 “평화” 이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깊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면 이 땅 가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살롬은 우리가 죽을 때도 계속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사를 주십니다.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에 대한 가시적 표징과 인장입니다. 성례전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사를 거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를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대해 말씀 하십니다.

#### 요한복음 6:35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주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요한복음 6:48~69

48 ”그렇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다 죽었느니라

50 그러나 하늘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줄 이 떡은 곧 내 살이니라.”

52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이 물었다.

53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리리라.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57 나를 보내신 살아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  
아 살리라.

58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당신의 조상들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59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니라

60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61 예수께서 제자들이 불평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62 그러면 인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63 오직 성령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사람의 노력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 말이 영과 생명이다.

64 그러나 너희 중에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고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아셨느니라.)

65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사람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66 그 때에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니라

67 이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돌이켜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하시니

68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나이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주께 있사옵나이다

69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압니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열어 주소서. 아멘.

##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49절과 50절에서 예수님은 만나를 생명의 떡에 비유하십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을 지탱해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들은 바위에서 기적의 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참 생명의 근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3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하나님이 너희를 낫추사 너희로 주리게 하시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며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희를 먹이셨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어떤 것에서도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요소들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세례에서 물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신성한 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물이 몸에 뿌리는지, 붓는지, 물에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물이 당신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여 주십니다.

이 빵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많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전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큰 컵의 주스는 당신을 더 영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소에 은혜를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먹고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신성한 물건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수”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빵과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마법의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례의 물은 거룩하시고 실제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친교의 떡과 포도주는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영구적이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언약 공동체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돌아가신 희생적인 어린양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강화하고 지지하기 위해 영적인 축복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삶에 필요한 능력은 이 식탁의 떡과 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35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특별한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내게 오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으로 여러분을 섬길 때 우리는 종종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실제 인간 육체라는 뜻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이 내 몸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진

을 보여주고 ”이 아이는 내 막내 루시”라고 말하면 사진이 루시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녀의 사진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갖 종류의 그림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포도나무요 목자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문이나 포도나무로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각적 학습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와 은유와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문과 문과 길이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빛, 어린양, 떡, 신랑, 포도나무이십니다. 이 그림들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에나 문에나 이 떡과 잔에 소망을 두지 말라! 당신의 희망을 그리스도께만 두십시오.

## 그러면 우리는 왜 성례전을 합니까?

성례전은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600년 전 아프리카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전이라는 단어를 정의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례전이 ”내적이고 지속적인 은총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의 물은 예수님에 의해 깨끗하게 씻겨진 물리적 그림입니다. 이 식탁은 예수님이 참 생명의 근원이심을 일깨워 주는 가시적 표징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군중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혼란스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6:53, 55, 56, 59, 60.

53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59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니라

60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이르되 이는 심히 이해하기 어려우니 어찌 능히 받아들리리요

예수께서는 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종류의 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근원이니 나를 믿으라”고 간단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율성에 대한 망상에서 우리를 흔들여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극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믿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식민 세력을

위해 자유를 위해 싸울 때처럼 정치적 독립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죄는 자율성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욕망입니다. 성례전은 교만의 유독한 죄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예수님은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취미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서 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과 음료에 의존하고 있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음식과 물만큼 당신의 존재에 기본입니다.”

이제 혈액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55-56절을 다시 보십시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유대인의 생각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이 피에 있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을 마시는 것이었고 그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피가 용서와 관련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동물의 생명의 피를 희생으로 쏟았을 때 그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오늘날 집이나 새 차를 살 때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약을 어기면 집이나 차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언약이나 계약을 할 때 피를 약속했습니다. 그 계약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동물의 피를 쏟았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4,000가지 이상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4~5쿼트의 혈액이 있습니다. 당신의 피는 당신에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합니다. 즉, 혈액은 독소를 제거하여 죽음을 예방합니다. 혈액은 또한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로 운반하여 생명을 유지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혈액은 독소를 제거하고 영양분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와 사망을 없애고 생명을 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의 피에 관한 말씀이 몇몇 제자들에게 혼란스러웠는지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6:66-69을 다시 보십시오.

66 “이 때에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니라.

67 이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돌이켜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하시니

68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나이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주께 있사옵나이다

69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압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 때문에 몇몇 추종자들을 잃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그들 중 일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Peter가 이해한 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나이까 영생을 주는 말씀이 계시니이다.”

우리는 또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친구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참 생명은 떡을 먹고, 믿고, 피를 마시고, 그의 말씀을 들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인 로버트 브루스는 ”말씀을 전파할 때 귀로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성례전에서 눈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의 모든 부분의 목적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식탁에 올 때 그것이 컵에 담긴 주스인지 포도주인지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빵을 선택하든 글루텐 프리 크래커를 선택하든 상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톨릭 교회에서 자랐을 때 우리는 영성체 중에 무릎을 꿇곤 했습니다. 그러나 서거나 앉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성찬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내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몇 분 후에 우리 자매의 세례를 볼 때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르는 다양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그에게 올 수 있는 많은 방법.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장벽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문입니다. 죄와 실패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씻는 물이요, 당신을 정결케 하는 피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으로 당신을 짓누르려고 할 때, 당신의 세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십시오.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절하고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그는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덩굴입니다. 당신이 연약하고 궁핍하다고 느낀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을 지탱하는

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하늘의 잔치와 혼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이제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교회 가족으로서 함께 친교와 세례의 성사를 거행할 것입니다.

폐회기도 예수님, 우리는 당신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를 알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양처럼 우리는 잘 배우지 못하고 배운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 은유, 그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고 우리의 길을 가고 싶어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상기시켜 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당신을 의지하는 자녀임을 상기시켜 주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